

【국 어】

1. <보기>의 규정이 적용된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삼진날[삼질+날] 순가락[술+가락]

- ① 풍소

② 여단다
- ③ 잔주름

④ 선부르다

2. 다음 용례를 통해 ‘갈다’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례>

㉠ 기계로 칼을 갈다.

㉡ 땀물에 녹두를 갈다.

㉢ 자면서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

㉣ 이따금씩 ‘깡!’ 하고 목을 갈기도 하였다.

- ① ㉠을 통해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을 통해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을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 ③ ㉢을 통해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 대고 문지르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 ④ ㉣을 통해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다.

3. 다음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앞이 노랗게 ㉠물들었다.
- 그는 이 소설책을 열심히 ㉡읽었다.
-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긴다.

- ①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③ ㉢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 다음은 접미사 ‘-히’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의 용례를 추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미사 ‘-히’의 의미 및 기능	접미사 ‘-히’의 용례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나뭇가지를 뒤로 <u>젖혔다</u> .
㉡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u>맷힌</u>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자리를 <u>넓혀</u> 앉았다.
㉣	(형용사의 어근이나 ‘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되는 어근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학생들이 교실에서 <u>조용히</u> 공부하고 있다.

- ① ㉠의 용례로 “학생들에게 주로 신문 사설을 읽혔다.”에서의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의 용례로 “그는 굽힌 허리를 천천히 세웠다.”에서의 ‘굽힌’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의 용례로 “무더위가 혼란 중인 선수들을 괴롭혔다.”에서의 ‘괴롭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의 용례로 “둘이 나란히 앉았다.”에서의 ‘나란히’를 추가할 수 있다.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처럼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처럼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③ ‘홍빛나 Hong Bitna’, ‘한복남 Han Boknam’처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④ ‘남산 Namsan’, ‘독도 Dokdo’처럼 자연 지명물,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6. 다음 자료를 토대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의 자료	중세 국어의 특징
나·라·해, 불·휘 기·폰	㉠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연달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활용하고 있다.
: :도훈, ·푼·디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수·삿나·겨·날·로·뿌·메	㉢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고 있다.
: 내·히 이·러 바·라·래·가·느·니	㉣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정상급으로√ 이루어√ 진√ 시립교향악단이√ 곧√ 정기√ 공연을√ 한다.
- ② 제√ 2분과√ 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성싶다.
- ③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들은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④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데√ 목적이√ 있는√ 듯√ 전공√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8. <보기>에 제시된 “안은 문장”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장들이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어진 문장,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 ① 그것은 영이가 입을 옷이다.
- ② 우리는 돈 없이 여행을 떠났다.
- ③ 결국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 ④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녀와 영이를 만났다.
- ② 10분 정도 있다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 ③ 그는 웃으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친절히 안내했다.
- ④ 그는 점심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10. 다음 중 국어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녀는 정말 많이 운다.”에서 ‘정말’은 동사를 꾸며준다.
- ②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에서 ‘과연’은 문장을 꾸며준다.
- ③ “영이는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꾸며준다.
- ④ “아이는 맨 흙투성이로 집에 들어왔다.”에서 ‘맨’은 명사를 꾸며준다.

※ [11~12]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 생애(生涯) 아니려나
 빙 떠라 빙 떠라
 어옹(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충(至菊窓) 지국충(至菊窓) 어스와(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흥가지나 추강(秋江)이 은듬이라

(나) 간밤의 눈 갠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란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천첩옥산(千疊玉山)
 지국충(至菊窓) 지국충(至菊窓)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1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계절을 배경으로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 ② “지국충(至菊窓) 지국충(至菊窓) 어스와(於思臥)”라는 여음이 전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 ③ 조선 후기의 시조 문학을 대표하는 맹사성의 작품이다.
- ④ (가)는 가을, (나)는 겨울을 각각 배경으로 한다.

12. 밑줄 친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 ② ㉡: ‘배를 매어라’는 의미의 여음구이다.
- ③ ㉢: ‘반반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의미한다.

13. 다음 중 문학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며,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꿈과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조이다.
- ② ‘반영론적 관점’은 문학과 사회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 ③ ‘폐관문학’은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윤색하여 창작한, 흥미 본위의 문학을 말한다.
- ④ ‘세대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사회의 한 단면이 변모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소설을 의미한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도 다 지나, (㉡)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나?”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나?”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14. 24절기 중 ㉠과 ㉡에 각각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 ① ㉠ 청명 ㉡ 처서 ② ㉠ 입춘 ㉡ 곡우
- ③ ㉠ 곡우 ㉡ 경칩 ④ ㉠ 경칩 ㉡ 청명

15.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긴 작품이다.
- ② 한국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불안과 고뇌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③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인물이 함께 귀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 ④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올리히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 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16. (가)~(라)를 글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나)-(라)-(다)-(가) ② (라)-(나)-(가)-(다)
- ③ (나)-(가)-(다)-(라) ④ (라)-(가)-(다)-(나)

17. 밑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 ②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나뉘어 계급적 유대감이 약화되었다.
- ③ 벡은 개체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바우만은 가속화된다고 보았다.
- ④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은 개체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18. 다음 고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오니까?” 물었다.

환공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올시다그려.” 한다.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여 환공이 노기를 띠고, “그게 무슨 말인가? 성인의 책을 찌꺼기라 하니 찌꺼기 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 두지 않으리라.” 하였다.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한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뢰오리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당기면 엇먹고 급하게 당기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리지도,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데 묘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손이 익고 마음에 통해서 저만 알고 그렇게 할 뿐이지 말로 형용해 남에게 그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옛적 어른들께서도 정말 전해 주고 싶은 것은 모두 이러해서 품은 채 죽은 줄 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감께서 읽으시는 책도 옛사람의 찌꺼기쯤으로 불러 과언이 아닐까 하옵니다.”

환공이 물론 턱을 끄덕였으리라 믿거니와 설화나 문장이나 그것들이 한 묘(妙)의 경지의 것을 발표하는 기구로는 너무 무능한 것임을 요새 와 점점 절실하게 느끼는 바다.

- ① 以心傳心
- ② 遼東之豕
- ③ 不立文字
- ④ 敎外別傳

19. 다음 중 ㉠~㉤의 독음이 모두 적절한 것은?

梅花는 確實히 春風이 ㉠駘蕩한 季節에 ㉡爛漫히 피는 濃艷한 白花와는 달라, 現世的인, 享樂的인 꽃이 아님은 勿論이요, 가장 超高하고 ㉢狷介한 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 꽃이 淸楚하고 佳香이 넘칠 뿐 아니라, 氣品과 雅趣가 比할 곳 없는 것도 先驅者의 性格과 相通하거니와, 그 忍耐와 그 ㉣霸氣와 그 ㉤辛酸에서 結果된 梅實은 先驅者로서의 苦衷을 흠뻑 象徵함이겠다.

- ① ㉠태탕 ㉡난만 ㉢견개 ㉣패기 ㉤신산
- ② ㉠태탕 ㉡문만 ㉢견개 ㉣패기 ㉤행준
- ③ ㉠야장 ㉡난만 ㉢연개 ㉣염기 ㉤신산
- ④ ㉠야장 ㉡문만 ㉢연개 ㉣염기 ㉤행준

20. 다음 중 레제드라마(lesedrama)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극과 희극이 결합된 극을 말한다. 불행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상황이 전환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 ②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을 의미한다.
- ③ 상연보다는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쓴 희곡을 말한다.
- ④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의미한다.